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북한 정치 해설서

이상우(1997), 「북한 정치 입문: 김정일 정권의 특성과 작동 원리」, 나남출판

김영수 / 신아세아연구소 북한연구실장

**오**리 주변에는 소위 '북한 전문가'가 수도룩하다. 모두 북한말도 유창하게 하고 북한에 대한 상식 또한 만만치 않다. 허나 실상 사람들은 북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곧잘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주장한다. 그러다보니 북한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과연 어떤 정치체제에서 살고 있으며 어떤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있는 이상은 무엇인지. 또 북한을 다스리는 250만 통치 집단과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2,000만 남짓한 백성들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북한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어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쉽게 이해된다. 소위 '갑'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통치 이념, 정치 조직, 통치자들의 생각들을 분석해보면 단순한 체제인 북한 정치의 특성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에게는 북한 정치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현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대다수가 굶고 있는데 죽은 통치자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불 건립에 식량 살 돈을 쏟아붓고도 정부가 간재할 수 있는가? 그런 핍박과 고통 속에서 주민들은 왜 반란이나 봉기를 일으키지 않는가?

우리의 상식은 정부는 주민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상식은 주민은 정부와 통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들의 상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야기된 대북 정책의 혼란도 사실 북한정치체제의 특성 및 그 작동 원리에 대한 몰이해 및 인식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 정치 입문」은 이런 문제 의식 아래 저자가 20여 년 동안 서강대학교에서 '북한 정치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얻은 강의안을 바탕으로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풀어쓴 책이다.

북한 정치의 몇가지 핵심이 되는 부분을 쉽게 해설해준다면 일반 시민들도 쉽게 북한 정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내용은 되도록 단순화하고 그대신 논리적 해설을 저자 나름대로의 일관성 속에서 평이하게 풀어가고 있다. 특히, 북한 정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알면 북한 정치는 의외로 단순하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김정일 정권의 특성과 작동 원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모두 12 개의 장으로 꾸며져 있다. 제1장은 남한의 북한 정치 연구 현황과 북한 연구시 지켜야 할 유의점을 소개하고, 제2장은 한국 전통 정치 문화 및 일제 식민지 유산의 연속성 속에서 북한 정권의 탄생 과정을 명료하게 서술했다. 제3장과 제4장은 북한 전체주의의 신정적 특성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전기를 소개하면서 분석해 주고 있다.

제5장과 제6장은 조선노동당과 정부 조직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 제7상에서는 주체사상의 발전 과정, 사상의 핵심 분석,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관계를 통해 주체사상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갖도록 하고 있다. 제8장, 제9장, 제10장은 경제·외교·군사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10장에서는 북한의 전쟁관과 전쟁 능력, 군사 정책과 군편제를

설명하고 있다. 제11장은 북한의 대남 정책을 풀이했고, 제12장은 앞으로 전개될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전망했다. 북한체제에서 과연 무엇이 바뀔 수 있는지를 전제한 후 정치 개혁과 경제 개방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각 주제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장의 끝에 참고 서적을 몇 개씩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록으로 북한의 ‘행정 구역도’, ‘주요 사회경제지표’, ‘권력 서열’, ‘사회주의 헌법’ 등의 북한 관련 자료를 실음으로써 북한 정치 입문서의 구색을 충족하고 있다.

앞으로 이 책의 주조인 제도와 구조 그리고 정책을 과연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분석해주는 내용이 첨가된다면, 북한 정치의 이론과 실재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